

# 전남 해양쓰레기 연간 최대 4만 발생

전남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최대 4만 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10일 전남도가 (사)동아시아 다공동체 오션에 의뢰해 최근 남포 받은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내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양은 연간 최소 2만 2895에서 최대 4만 5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육상과 해양(외국 포함) 등 2가지 경로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에서는 주로 하천을 통해 쓰레기가 유입되는데 평소 연 1.9~12.4t, 홍수철엔 5047t에 달한다

해양에서 버려진 쓰레기도 연간

## 용역 중간결과, 현존 쓰레기 1만8000t

### 절반 외국서 유입...10월 최종 보고회

315t~840t에 이른다. 용역결과 쓰레기의 육상유입량 중 90% 이상이 홍수기인 7~9월에 집중됐다. 해양에선 어선·양식어업과 항만, 외국 유입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어선어업 쓰레기는 연간 7989t으로 업종별로 자방어업이 41.1%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복합·기타(35.4%), 근해(17.0%), 통발(5.9%) 순이었다. 양식어업을 통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연간 3831t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김(55.5%), 미역(20.0%), 굴(12.3%), 다시마(7.4%), 홍합(4.8%) 순이었다. 항만쓰레기도 연간 1730t에 달했다. 용역결과 외국기인 유입량이 한 해 적게는 3960t에서 많게는 2만 1120t에 달한다. 전남도내 해양쓰레기양이 연간 최대 4만 t인 걸 감안하면 많게는 해양쓰레기의 절반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셈이다. 현존 쓰레기양은 1만8589t에 달하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침적·부유쓰레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지난 4월 기준 전체 잔존 쓰레기의 87%인 1만618t, 육지지역은 지난해 연평균 기준 2408t이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착수했다.

전남도는 오는 6월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자문회의를 거쳐 10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발생량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효율적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美소방관, 산소마스크 씹어 새끼 고양이 살려

미국의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새끼 고양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대주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팜비치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팜비치의 한 주택에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소방관들은 반려묘를 구하러 갔다며 건물에서 나오지 않는 집주인을 간신히 끌어냈다. 그러나 불 속에 갇혀 있을 고양이를 내버려 둘 수 없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고양이도 구해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구조된 고양이는 축 늘어진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 소방관들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입에 산소 마스크를 대 줬다. 자기 얼굴 크기만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고양이는 이윽고 기쁜 숨을 내쉬며 깨어났다.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보내져 검사를 받은 뒤 주인과 상봉했다. 집주인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의 네티즌들은 "베일 복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한다", "소방관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당신들이 진정한 일상의 영웅" 등 감동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란, 이스라엘 군기지 미사일 공격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군이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측은 인명 피해는 없었다.

타인스오르(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시리아 남부에 머물고 있는 이란군이 이스라엘 군기지로 미사일 20기를 발사해 일부 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이란 최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IRGC) 소속 알 퀴드(Al Quds) 부대가 공격 배후라며, 군기지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주로 같은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다른 세력을 통해 대리 공격을 주로 벌였다고 TOI는 설명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T-4 공군기지 공습으로 IRGC 고위 장성을 포함해 이란군 7명이 사망하자 보복을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의 조너선 콘리쿠스 대변인은 군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했다며 "이란의 이번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시리아 국영 매체들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의 군초소를 공격했다며 이 곳에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정부와 우방인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를 돕기 위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일대에 군대를 배치했다.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 주둔을 통해 자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T-4 공군기지 외에도 시리아 내 이란의 군사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수 차례 시리아를 공습했다.

## 美 델타항공 기내서 연기나 대피소동

미국 디트로이트를 출발해 덴버국제공항으로 가는 델타 항공기 기내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탈출했다.

델타 항공의 마이클 토머스 대변인은 항공기가 덴버 공항에 착륙한 뒤 객실 내에서 연기가 나자 승객들이 슬라이드와 오버워그 비상출구를 통해 탈출했다고 말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부 승객들은 연기 흡입을 포함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수 있다고 항공사 측은 전했다. 하지만 화재는 관측되지 않았다.

한 승객은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른 승객은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객실에 연기가 가득 차었다고 전했다.

세벤지는 "산소 마스크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며 "승무원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승객들에게 대피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비행기가 덴버에 착륙한 뒤 도착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에 실내 환기구를 통해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버국제공항 대변인은 에벌리 윌리엄스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기 전에 연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탑승장으로 이동했다.

뉴스

## 산나물 값은 독초 먹은 중독환자 4년간 42명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산행 시 등산로 주변의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해 먹고 발생하는 '독초 중독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새순이 올라가는 봄철에는 산과 계곡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고 위험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4건의 자연독 중독사고로 4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자연독의 발생건수 대비 환자수를 살펴보면 1건의 사고로 10.5명이었다.

특히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해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눠 먹음으로써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봄철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독초와 산나물의 생김새가 비슷해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산행 중 등산로 주변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직접 채취하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산나물은 먹지 않도록 한다.

일반인들이 산나물로 혼동하기 쉬운 것들은 독초인 여로를 원추리, 동의나물(독초)을 골취로, 박새(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기 쉬우니 주의가 요구된다.

먹을 수 있는 산나물 중에서도 원추리순,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은 미량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 산나물이나 약초를 먹은 후 구토, 두통,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뉴스



초여름으로 가는 길목 맑고 화창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10일 오후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들녘에서 황로 한 무리가 씨레질하는 트랙터를 따라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다.

## 국방부 "5·18 계엄군 성폭행 진상조사 예정"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행 증언·보고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선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로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군 내부를 통해서 자체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9월에 (국회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방부가 이 사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마련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 검찰, 뇌물수수 혐의 한전 간부 3명 구속

한국전력공사 직원과 공사업체들 간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전 간부 3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을 수수한 혐의(특기법상 뇌물) 등으로 한전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이 중 2명은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 간부들이며, 1

명은 다른 지역 본부 간부 직원이다. 지난달 말 검찰은 다른 지역 본부 한전 직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기공사업자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자신이 뇌물받은 공사와 연계 A 씨에게 지난해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래는요... 자라치로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 서울특별시 129 | 고객센터 1577-1000